

주님의 사랑의 계명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22:37-4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40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34-35]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가끔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며 이미 지나간 계명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가르침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주 하나님의 가르침이므로 구약의 핵심 계명인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2 장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응답하여 주신 가르침이요, 요한복음 13 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르침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두 계명 간에 놀라운 차이를 발견합니다. 십계명 중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경배에 관한 것이요, 다음 여섯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대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의문에 명백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두가지 핵심적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즉 구약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모두에게 가르침과 영적인 양육을 주시는 데에 필수적이며 유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사람,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리와 책망과 지도와 훈육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신약 성도에게 해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적용을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분별하여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웃 사랑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매우 소중하게 사랑합니다.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즉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준은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이 낮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나 과음이나 마약 복용이나 과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폭력이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서 구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골짜기로 몰아 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별로 높은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을 대하는 수준이 낮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구약의 시대가 종료되고 이제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남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 분은 하나님인데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버리고 이 땅에 갈릴리의 한 시골의 목공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고, 매우 낮은 생활을 하시면서, 3 년반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온전히 남에게 자신과 제자들의 섭생을 의지하시면서, 물질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신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속죄 사면을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박혀 매달려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가르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구약의 계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수 없으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단언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움직여 자신의 포부와 욕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남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31]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